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증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본어판 gpnewsjp.org
중국어판 gpnews-cn.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12. 17 ~ 2024. 1. 6 제292호

Merry Christmas

박해 지역 기독교인 가정과 어린이에게 성탄절 선물을

성탄절을 앞두고 국제 선교 단체들이 박해받는 지역 크리스천 가정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물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며 신앙을 격려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 11개국의 기독교 가정 어린이들에게 성경, 학습용품, 장난감과 의복 및 위생용품을 담은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낸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VOM은 올해 부르키나 파소와 카메룬,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인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네팔, 파키스탄과 팔레스타인 및 필리핀에서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 가정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낼 계획이다. 각 성탄절 선물 상자의 내용물은 현지 성도들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준비된다.

한국VOM은 각 국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일반 기독교인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다른 국가를 선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올해 ‘성탄절 선물 상자’ 사업은 인도나 팔레스타인, 이집트 같은 곳에서 기독교인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독교인 대중에게 전해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기독교 가정 어린이들이 믿음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오픈도어선교회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지역 어린이와 가정들에게 비상식량과 선물을 마련해 발송하며, 동역자들에게 참여를 요청 했다. 오픈도어는 최근 소식을 통해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를 전하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의 헌금으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선물들과 비상식량이나 일 년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오픈도어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이후 조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로산이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가 운영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을 때는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라며 성탄절 선물을 통해 박해받는 지역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태국 북부와 라오스와 미얀마의 라후족 성도들에게 성탄절 선물 상자를 전달한 한국VOM의 동역자는 “라후족 성도들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관대함과 사랑에 감동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GPNEWS]



최수영 목사 (서산 선함목자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가 예배에 100% 출석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매일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덕분에 매일 저녁 예배와 기도 모임

이 생겼죠. 제 소망은 우리 교인 모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모두가 선교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 계속 전진하는 중이에요.” 최수영 목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몸 된 교

회의 이야기다. 작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그의 교회 이야기를 들어본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5)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 반역 선택한 루시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매우 좋다!”고 하셨다. 모든 것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곳 에덴동산은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다툼도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였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으며, 사람은 이 곳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과 숨가쁜 생존 경쟁이 지배하고 있다. 빈곤과 재난, 테러와 전쟁이 세

계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 자체가 곧 쉬지 않는 투쟁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봐도 지금의 세상은 살기에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상이 이렇게 변해 버렸을까?

성경은 루시퍼의 교만이 그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한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천사 루시퍼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그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던 탐욕을 품게 만들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야, 이는 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이사야 14:12~14, KJV)

루시퍼의 문제는 (내가) 하늘나라를 장악하려는 욕망, 곧 ‘지극히 높으신 이와’ 맞서려는 반역의 마음에서 나타났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늘에 있



일러스트=김경선

는 모든 천사들의 지배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 루시퍼의 마음속 교만은 수그러들 수 없는 탐욕으로 달아올랐다. 교만한 루시퍼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실 때,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은 바로 자기 의지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루시퍼의 교만함은 천사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선택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루시퍼의 선택을 ‘죄’라고 하셨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 성탄 축하 무대에 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제공: WMM

새해야만

양털 옷을 입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성탄 축하 무대에 섰다. 돌씩 짝을 지어 마이크를 잡은 어린 양들의 하모니가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진다.

전쟁 전에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느덧 1년 10개월째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로 끌려간 것으로 확인된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1만 9546명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돌아온 어린이는 4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납치해 강제로 러시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실종된 아이들과 러시아 위탁 가정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세뇌 당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아이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에게는 불리하지만 하다. 전쟁 중재를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각국의 이권을 다투며 이런저런 논의를 하지만

과연 이 전쟁을 누가 종식시켜 줄 수 있을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중 온라인 검열 강화... 가정교회 '온라인 사역'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한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최근 3개월간 중국의 검열로 온라인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챤리티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적잖은 중국 가정교회들은 검열에 비교적 안전했던 미국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성경공부, 제자훈련 등을 제공해 왔지만, 최근 몇 달간 중국의 온라인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으로 인해 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중국 교회들의 모임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멈춰주시고, 펍박받는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수단, 콜레라 환자 70% 급증... 160여 명 사망

유엔의 구호기관인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4일 내전으로 고통받는 수단에서 급성 전염병 콜레라가 70%나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160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OCHA는 “오늘(4일) 기준으로 수단의 콜레라 의심환자는 거의 5200명에 이르렀으며 9월 26일 이후 사망자가 160여 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님, 급속도로 퍼지는 전염병인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수단 영혼들에게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내 마약사범 2만 명 넘어서... 10~20대가 30% 넘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단속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 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작년 동기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났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는 1174명, 20대는 6580명으로 집계돼,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

마약에 취해 몸과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신 십자가 복음의 빛을 비추사 성령 충만한 생명의 회복을 이루소서. [GPNEWS]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말씀암송캠프”... 매주 토요일 열린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요즘 어린이들을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고백하게 하는 ‘말씀암송캠프(이하 캠프)’라는 이름의 성경학교가 등장했다.

서울 신월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박동하 목사) 지소영 사모는 코로나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들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말씀암송을 진행했다. 5명으로 시작한 암송은 어느덧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캠프를 찾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에는 매주 토요일 하루 동안 신청하는 교회를 찾아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말씀암송캠프’라는 이름으로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된다.

캠프는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됐다. 지소영 사모는 “세상을 바꾸자

는 유튜브 채널을 보던 중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자는 심정으로 매일 저녁 온라인 화상의 플랫폼인 ‘줌’으로 15분간 어린이들과 성경암송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캠프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 사모는 “말씀마다 동작을 만들어 한국의 전래놀이와 연결하는 활동으로 암송을 진행하자 어린이와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소개했다. 같은 방법으로 몽골에서도 성경학교와 세계관 학교를 열었는데 “성경학교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몽골 성경학교는 매년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몽골 선교를 통해 몽골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외우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학교는 한 번만 가고, 성경학교는 매일 오고 싶어요.” “성경학교 전날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와요.” 성경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고백이다.

캠프는 각 교회가 2024년 주제 말씀이 있는 본문을 정하거나 진행팀과 협의해 말씀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진행팀은 사전에 암송 동작을 개발하고 신청한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

지소영 사모는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의 한몸됨과 잔잔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책 ‘153가정예배’의 저자로, 말씀암송과 성교육 등 다음세대를 위한 강의로 한국교회회를 섬기고 있다. 캠프 문의 | ☎ 010-6808-2571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6일

12월 18일 ~ 12월 23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광주 북구 / 예수마을교회(박**)010-2330-5849, 12.20-22(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2.21(18시)~23(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이**)010-4661-4039, 12.22(00시)~23(24시) ▶인천 계양 / 열린문교회(김**)010-7336-7535, 12.22(15~20시), 24(15~17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9교회 진행중.

12월 25일 ~ 12월 30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25-27(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12.25-2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26(00~24시) ▶대전 서구 / 주영광교회(김**)010-9218-6023, 12.29-30(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23, 그 외 9교회 진행중.

1월 1일 ~ 1월 6일 1.1(00~24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1(08~20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1(11시)~3(18시) ▶인천 연수 / 열방드림교회(오**)010-8240-3623, 1.1(00시)~5(24시) ▶인천 계양 / 열린문교회(김**)010-7336-7535, 1.1~6(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4(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5(00~24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5(12시)~1.6(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21년간 계속된 기도24·365 완주감사예배... “스스로 굳세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1년 365일,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해온 기도24·365가 2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부교회(담임 임채영 목사)에서 2023 완주감사예배를 진행했다.

기도24·365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오던 400여 명의 기도자들이 참석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을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집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진행,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기도본부는 매년 전 세계 240여 개 나라와 수천여 미전도종족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마라톤에 비유, 완주를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연말마다 2003년부터 가졌다. 21년을 지나오는 동안 24·365기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2020년을 전후해 365개였던 팀이 하나의 팀으로 단일화되고, 세계 기도정보 책자를 읽으며 하던 기도 정보가 기도앱으로 바뀌고, 기도자들에게 기도시간을 알람해왔던 기도알람이 기도방송으로 달라졌다.

이에 기도본부 김순애 선교사는

“방법은 바뀌었고 우리는 연약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주목하자. 한 해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전했다.

기도24·365 공동선언문 발의자로 이날 메시지를 전한 김용의 선교사(오후 4시 기도·로그미션 대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로 망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돼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교회가 받은 위대한 사명은 교회의 능력에 맡겨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을 내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결론이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20년의 순종의 길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수백 번 경험했다. 그러나 한번 넘어지면 또



▲ 기도24·365 21주년 완주감사예배 현장. © 복음기도신문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며 “복음이 운명이 되고 기도의 결론을 가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뤄가신다.”고 말했다.

이날 메시지에 앞서 기도의 간증자로 나선 강은선 전도사(신안 열방선교센터)는 “느헤미야52기도를 14년째 해왔다. 그러나 기도만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농작물이 해를 입고, 키우던 개가 죽고, 갑자기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해 우리의 기도를 멈출 이유가 생겼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면 기도를 멈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주님이 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전도사는 이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기도자로

빛어가셨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기도자로 세우실 것을 기대한다.”고 나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지연 권사(79, 부산변영로교회)는 “올해 80세인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이번에 안 가면 마지막이겠다 싶어 참여했다.”며 “이것은 내 사명이다.’ 여기며 15년째 기도하고 있다. 돌아가서는 건강이 허락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7년 전 24·365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김사랑 선교사(35, 할렐루야교회)는 “늘 항상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돼서 죄책감이 있다. 그런데 완주감사예배 오면 다시 무릎 꿇게 하는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이 불러 세워주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마음을 주신다.”며 “완주를 해본 적 없

고, 전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유익이 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고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이날은 곳곳에서 다음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하경 학생(15, 서산선한목자교회)은 “기도24·365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다음세대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다음세대의 죄악에 대해서 제가 더 대신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 다음세대를 살릴 수 있는 자로 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날 모인 기도자들은 자연재해와 쿠데타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김주선 선교사(헤브론선교대학)가 기도를 인도하고, 각종 범죄와 중독에 고통하는 다음세대를 위해 지하람 형제가, 북한,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니스탄 등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의 통치와 구원을 위해 박미애 선교사(순회선교단)의 기도인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느헤미야 기도자들 한자리에... “우리는 사라져도 기도는 남아 이루어진다”

2023 기도24·365 완주감사예배가 열린 당일, 대회 시작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단위 기도운동의 책임자인 느헤미야들의 모임이 서부교회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됐다.

‘느헤미야’로 불리는 기도자들은 한 주 동안, 144시간 진행되는 느헤미야52기도를 위해 기도자를 동원하고 기도표를 작성하는 등 기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섬기는 사람을 말한다.

이날 느헤미야들은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서산,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춘천, 울산, 남원, 전주, 신안군 압해도, 대구, 김해, 통영, 두미, 부산, 키르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전국과 해외에서 42명이 집결했다. 느헤미야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느헤미야 기도자는 “느헤미야 기도를 처음

접했을 때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혼자 기도하기에는 벅찼다. 그래서 사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95세의 어머니는 처음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10년 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할머니 세 분이 (기도의) 주 멤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느헤미야 기도자는 “육체가 연약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많이 힘들 때는 위기였으나 기도하는 것만이 살길임을 알고 포기하지 않았다. 복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됐다.”며 “외국에 나갈 때도 느헤미야 책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한다. 사돈도 함께 기도하고, 어디를 가도 느헤미야 기도를 함께 한다.”고 고백했다.

이날 느헤미야 모임에 참석한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 앞에 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에 기도에 올인하기로 하고, 이사야 62:6~7 말씀으로 24·365기도가 시작됐다.”며 “우리가 기도한 내용은 엄청난 기도였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지치고 병들어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드린 기도는 남아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느헤미야들의 순종의 걸음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팀을 섬기는 박건호 선교사는 “느헤미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고백, 한 번도 그만둘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고백, 그의 나라와 뜻을 구했을 뿐인데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간증이 넘쳐났다. 전국 각

처에서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느헤미야들을 정금같이 남겨두셔서 반드시 보게 될 승리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기도자를 세우는 일에 보여주신 만큼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밝혔다.

느헤미야52기도는 공동체와 교회가 두 사람 이상 연합하여 느헤미야52기도정보로 연속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기도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사 56:6~7), ‘열방기도센터’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느헤미야52기도의 무기, ‘느헤미야52기도정보’ 6종(복음과기도미디어출간)은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의 능력, 박해를 이긴 교회’, ‘복음의 축복, 다음세대를 세우라’, ‘복음의 실제, 죄를 진멸하라’, ‘복음과 선교, 그 날이 오기까



▲ 느헤미야들의 모임. © 복음기도신문

지’, ‘복음의 승리, 영적전쟁에서 이긴 교회’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올해 이 기도에 동참한 교회와 기독 공동체는 한국과 해외에서 44개팀이 참여했다.

한편, 기도24·365본부는 이날, 2023 완주감사예배에서 12월 1일 ~ 2024년 1월 31일에 진행될 느헤미야52일 기도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기도 신청을 받았다. 이번 느헤미야 기도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해당 기간 중 하루를 택하여 24시간 기도를 진행하면 된다. [GPNEWS]





선교 통신

민주콩고, 기독 청년들 아웃리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 전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섬겨온 지 5년 여가 지났다. 지난 9월 4일에는 조 야킴 바우마 형제, 줄리앙 시웨라이 형제, 그리고 유일한 자매 그라 세 아사가 12주간의 선교사 훈련 학교인 HMTS(Hebron Missionary Training School)를 시작했다.

HMTS를 시작하면서 훈련생들은 지나온 '나의 삶'을 나눴다. 어릴 적에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엄마가 손을 묶고 불을 지르려고 해 놀랐음에도 멈출 수 없었던 도둑질, 화장실 통통에 빠져 독으로 거의 죽을 뻔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난 일, 반에서 1등을 놓치면 분하고 억울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예쁘게 차려입어야 직성이 풀렸던 이야기들. 우리의 죄 된 본성들을 나누며 우리가 참으로 기뻐했던 것은, 그렇게 소망 없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였다.

훈련생들은 계속되는 복음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복음 앞

에 비취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준비한 복음 강의를 형제자매들 앞에서 선포하기도 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처음으로 경험한 거리 전도의 시간에는 폭포수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 때론 거절당하고 야유를 받아 가슴 아파하면서, 더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은 빚어가셨다.

그렇게 12주를 마치고 드디어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고 '믿음으로!'를 외치며, 팀명을 '믿음의 3인(Trio de la foi)'으로 정했다. '믿음의 3인'이 밟게 될 땅은 고마에서 남쪽으로 배로 6시간을 가야 하는 칼레헤 섬이다. 공동체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고, 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연고나 친척도 없는 아주 낯선 땅이었다. 더구나 우리의 아웃리치는 숙소나 주된 거점을 확보하고 가는 일정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일정이었다.

'이들이 어느 교회의 소속이고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니 귀하의 교회에서 받아주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편지 하나만 있으면 환영을 받는 것이 이곳의 관례이다. 그러나 공식 편지를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모든 환경 속에서 HMTS에서 배운 복음이 실제 되게 하는 것이였다.

드디어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아침 6시.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고 떠난 '믿음의 3인' 팀은 칼레헤에 잘 도착했지만, 당장 그날 밤부터 잠을 잘 곳이 문제였다. 팀은 도착하자마자 가까호호 방문하며 전도하고 교회도 찾아갔지만, 자신들을 설명할 편지 한 장이 없어 교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 결국, 한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은 지내고 소개장이 없으니 월요일에는 고마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했다. 게다가 칼레헤 지역에 도착때들이 나타나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있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원하지 않기에 거리에서도 전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다. 이 일을 놓고 공동체에서 함께



▲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제공: 김경희 선교사

기도하고, 칼레헤에서 배로 2시간 이면 가는 이주이 섬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믿음의 3인'은 이주이 섬에서 청소년 복음 세미나와 말씀기도, 그리고 각각 집을 돌며 전도를 하고 있다. 팀이 다시 고마로 복귀를 할 때, 어떠한 사도행전적 믿음의 보고를 듣고 올까 마음이 설레인다.

아웃리치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줄리앙 형제의 고백이 기억에 남는다. "공동체를 입소한 날부터 '복음을 전하겠으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의미를 다

모르고 했던 말이였음에도 주님은 나의 고백이 실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3인' 팀을 우뚝 세우실 주님을 더욱 기대한다. [GPNEWS]

콩고민주공화국=김경희 선교사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

동성애 문제 제기한 기독 전문가 비난한 학계...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

서울에 있는 J대학의 L교수 등 2명(교수, 연구원)이 학술논문을 통해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 발언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을 기화로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논문이 발간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이는 지성 집단의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논문은 L교수 및 연구원 B씨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와 조교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2월 공동으로 모 대학 여성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보건의학협회 김지연 대표를 포함해 10여 명의 학자·운동가들이 공동 저술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 656)"라고 서술했다. 또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서술했다.



▲ 2020 <서울 5기> ALAF 강사양성과정 현장. 출처: 에이랩 아카데미 홈페이지 사진 캡처

그러나 김 대표의 저작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벌어진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61부(김세용 부장)는 김지연 대표가 L교수 및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의 소'에서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언론회는 "해당 교수가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책에서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자신의 논문에 표기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

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김지연 교수가 쓴 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표기한 것을 인용 왜곡해 해당 L교수가 김 교수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 내용을 왜곡시켰다."며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L교수는 인용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 사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김지연 교수가 쓴 글에서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합리적 이유와 명백하게 동떨어진 것으로, 유명대학 현직 교수가 의도적으로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러한 행위를 확장시키려는 것처럼 호도하

는 것은 심각한 반지성,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이 문제를 신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수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 수정 및 삭제를 먼저 요청했으나 이에 대하여 해당 교수는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혐오자로 몰린 피해자인 김지연 교수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사이에도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판결 전에 사과하고 삭제하면 화해·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기회를 찾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언론회는 "이는 학자의 양심,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성이 고약하다."며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지성인이 오히려, 개인과 기독교를 마치 우리 사회에서 혐오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지금 이 상태로 안된다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릴 준비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 있다. 각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어느 때에 의지와 적극성을 드러내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세속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 "저들은 장차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10)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삭 사건의 의미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
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
하여 살아났느니라”(롬
4:23~25)
십자가의 복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90% 믿어서는 안되며, 그분
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고 나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것
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
이 내게 ‘오직! 절대! 전부!’
가 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
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면서 사는 모습은 전
혀 십자가의 죽음하고 아무
런 상관없이 살며,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오직
나, 나, 나’, ‘오직, 절대, 전부

는 다 나야.’ 이런 삶을 바꾸
지 않고 있다. 그렇게 신학
지식만 계속 쌓여가고 체험
은 계속 늘어나고 고민은 하
지만 그것은 항상 자기를 전
부로 내어 맡긴 대상은 ‘나’
였지 ‘진리’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오직
믿음’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
고 절대 믿었다고 성경은 말
하고 있다. 물론 중간에 흔들
릴 때도 있었다. 사라도 흔들
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려서
하갈이라는 몸종으로 이스마
엘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
부였음을 드러내었던 마지막
시험이 있었다. 아브라함에
게 남겨진 믿음이 어떤 믿음
이었는지를 역사가 다 주목
하도록 주님이 새겨놓은 아
름다운 사건 기록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소개한 창세기 22장



일러스트=이예원

은 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
기에 이보다 더한 표현이 없
다고 생각될 말씀이다. 이삭
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
은 아들이었다. 약속의 아들
인 이삭은 자기 존재의 미래
가 다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네 사
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
가 지시할 땅 모리아 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다. 상식과 경험으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이것
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시험
이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
고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그때 주님이 시험에 응하
는 아브라함의 중심에서 전
부가 된 믿음을 보셨다. 자
식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아
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
셨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

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
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
라”(창 22:12)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직
이요, 전부요, 절대였던 것이
다.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이
감동하신 장면이다. 사랑하
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
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
종에 감격하셔서 이삭을 바
쳤던 그 자리를 성전의 터로
결정하신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다. 주
님의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있는 곳. 주님이 감동을 받으
신 자리. 하나님이 나의 ‘전
부’가 되고 ‘오직’이 되고 ‘절
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
러내신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Jakins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출시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짖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s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나만이 알 수 있는 흔적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30)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말씀이었다. 이것은 또 내 삶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며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삶이라 생각하며 별문제가 없이 살았다.

결혼을 하고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산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할 수 없고, 큰 병원으로 옮겨 출산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기에 또 다른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동일하게 그 병원에서 분만을 도울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 하여 서울의 큰 병원 산부인과로 옮겨



일러스트=고은선

진료를 받고 추천해주신 병원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았다. 내가 내 상태를 볼 때엔 건강한 것 같았다.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건강에 큰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쪽 목에 마비 증상이 오고 한쪽 얼굴도 완전히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깨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다. 치료하며 몸은 빨리 회복되어가고 있었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

하게 하셨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내가 생각하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상 가치로 판단하는 내 안에 주님은 정말 고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여자였다. 그런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시간이 흘러 얼굴도 많이 회복되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

할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나만이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있다. 20년도 더 넘은 이 사건은 지금도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고 싶을 때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신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살아가게 하셨다. 내가 믿음이 좋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가끔 거울 속에 주름 잡히고 까맣게 그을려 기미가 잔뜩 생긴 내 얼굴을 대하게 된다.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짜증과 불만, 원망의 마음이 생키려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땀 때마다 칭찬하시며 응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곱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나를 칭찬하시며 응원하시는 주님과 사랑 이야기를 나는 오늘도 써 내려간다. [GPN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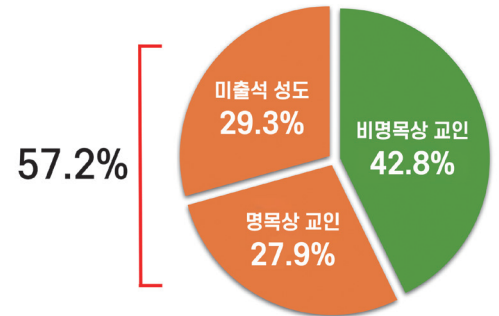
강정순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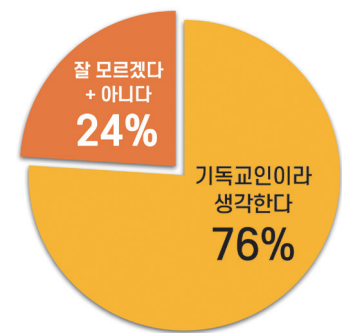
한국 개신교인의 57.2%... 이름만 교인

한국 개신교인의 57.2%가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명목상 교인으로 나타났다. 명목상 교인이란 문자 그대로 이름만 교인이라는 뜻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가 70.7%, 미출석 성도가 29.3%였다. 교회 출석자 중 명목상 교인이 27.9%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출석 성도’와 ‘명목상 교인’을 합하면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목상 교인’의 76%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4%는 ‘잘 모르겠다’+‘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명목상 교인의 51%만 구원의 확신을 있다고 응답했다.

명목상 교인 중 스스로의 인식



점점 세속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GPN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UN “북한은 현대판 노예 국가”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유엔이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고 지난 4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에 해당되는 것은 강제 노동과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 결혼 피해자 등이다. 호주 국제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은 올해 발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

구 1000명당 현대판 노예가 104.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현대판 노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디렉터 제클린 주드 라르센은 “북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의 실제 규모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수치는 북한 내 현대판 노예의 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는 학대를 가하는 주체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라는 점에



▲ 북한 학생들. 출처: Unsplash의 Micha Brändli

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라르센 디렉터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법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성인은 물론 어린이마저 농업과 도로 건설 등 강제 무급 노동에 동원되는 상황,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만연을 꼽았다.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 내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하며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기업들이 해야 할 조치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북한 정부를 향한 조치에 “국가가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근본적인 박해와 차별을 해결하고, 국가

가 강제 노동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관행을 범죄화

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PNWS]

러시아 내 北 노동자, 귀국금지·벌금·상납금 ‘삼중고’ 심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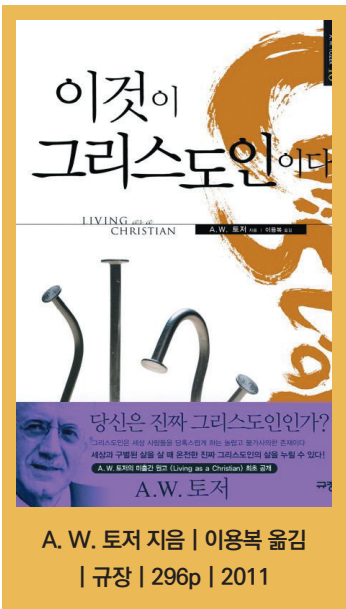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며 러시아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가 주목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 상납금 압박 등 인권 침해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가진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7년 12월 기준 3만여 명에서 2019년 3월 기준 4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5~2016년 사이 파견

단행본 등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파견돼 건축, 수산, 무역,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 당국에 바쳐왔다. 이렇게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매우 열악한 상황을 견디며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단속을 피해 상납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데 비자 발급과정을 간소화하고 향후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이 실제로

확대된다면 그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제노 책임연구위원과 이상근 연구위원은 “북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알 권리 및 정보의 자유 침해, 거주 이동의 자유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임금 갈취, 재산권 및 건강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으로 파견되면 인권 침해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GPNWS]

지금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은 대략 33%로 전망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23% 정도로 추산한다. 그중에는 분명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존재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

헌신과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내 안에 강력한 도전으로 주었던 말씀들 중 하나로 기억한다. 지금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믿는 바에 나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가. 고백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인생을 돌이켜 진정한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A. W. 토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을 통해 17가지의 그리스도인 된 자격을 기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명백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의 도전은 그리스도께 종신토록 헌신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게도 마음 깊은 울림과 돌이킴을 제시해 주었다. 선교사의 삶을 살고 헌신하였다는 것 자체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굳어지고 안일해질 수 있는지, 경고하고 도전했다.

"수없이 들어온 이 성경의 진리가 당신에게 감동이 없고 당신의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당신의 마음을 살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니, "내 마음은 굳어졌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는 곧장 스스로가 굳어진 채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 믿음을 과거의 것으로 만든다. 현실이라는 큰 장벽 앞에 주저앉아 안주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토저는 이 책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게 될

을 분명히 말한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낯선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전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교회 안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전 세계 교회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야 했고, 진정한 부흥과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신약 교회에게 주는 도전과, 70년 전 믿음의 선배된 토저의 도전이 지금 이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중간 지대는 없다.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란 합당하지 않다. 어중간히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17가

지의 기준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특별한 삶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토저는 마지막으로 천로역정의 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친구를 소개한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굳어진 채 결길로 떠나려가는 것을 그저 두고 보시지 않는다.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의 증거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제 교회는 마지막 부흥을 위해 참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한 증인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GPNEWS]

박해인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성정체성 혼란 겪다 자살한 딸 미국 어머니, 부모 권리 보호 촉구



출처: Unsplash의 Aiden Craver

성정체성 혼란을 겪다 자살한 딸의 한 미국 어머니가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CBN 뉴스에 따르면, 비영리 기독교 보수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딸의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상실한 캘리포니아의 아버지가일 마르티네즈를 대신해 미국 대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기독교인 부모의 가정에서 자녀를 분리시킨 인디애나 주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부모 권리 사건인,

M.C. 및 J.C. 대 인디애나주 아동서비스부 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아버지가일은 성에 대한 그녀의 종교적 신념이 딸의 성정체성 장애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10대 딸 아엘리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그녀는 지난 6월에 열린 캘리포니아 사법부 상원 청문회에서 "딸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내가 딸의 트랜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딸을 데려갔다. 나는 이름과 대명사 때문에 딸을 잃었다. 딸에게 남성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딸은 자살했다.

아버지가일은 지난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딸이 19세 때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무릎 꿇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일은 "학교 상담교사도 관여했고, 아동가족서비스국(DCFS)도 관여했으며, 젠더 쿼어(LGBT) 단체들도 '딸의 성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이 어릴 때부터 소년으로 느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는 말괄량이에 가깝

지 않았다. 집에서는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아이였다."고 말했다.

아버지가일은 학교 교장과 상담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자살 시도에 실패한 딸은 위탁 가정에 맡겨진 후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일은 "학교 상담사와 젠더 쿼어들은 딸이 집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아동복지국에 말했다."면서 "그들은 딸이 16살이었을 때 데려갔다. 나는 딸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매달 법원에 나가고 있었다.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딸이 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의 사회복지사는 딸이 성 전환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판사는 아버지가일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판사는 딸이 근본적인 우울증에 대한 정신 건강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아버지가일의 소원에 반하여 딸이 이성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한 젠더쿼어 단체는 딸에게 남성 정체성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버지가일은 당시 법원에 성정체성 문제보다는 정신 건강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에서부터 딸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가장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면서 한 사회복지사는 아버지가일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앤드류)가 자살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딸은 1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일은 다른 부모들이 자신이 겪은 아픔을 견디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거나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부 변호사인 카일라 토니는 "정부가 자녀의 삶에서 부모의 본질적인 역할을 빼앗으면 비극이 이어진다."며 "헌법은 주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모를 표적으로 삼거나,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방해하거나, 가정 내 발언에 사전 제한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11. 15 ~ 12. 5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해영 김경선 김선희 김신애 김애심 김형숙 박경희 박미정 박성규 박신희 신은혜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이견희 이삼연 이양희 이영선 이영옥 이왕원 이종훈 이진희 정금자 정옥영 정요한 조복형 조형광 존/정희 최영석 최은숙 최점욱 흥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침례교회 고현교회 다음세대팀(WMM) 마중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웹시흥교회 안양구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교회 주남교회 주남교회 주수망교회 참종양터교회 함안순복음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